김 일 성

강원도를 국제관광지로
잘 꾸릴데 대하여

전세계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김 일 성

강원도를 국제관광지로 잘 꾸릴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제8기 제3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89년 11월 14~15일

강원도는 자연지리적으로 볼 때 기후가 비교적 따뜻하고 긴 해안선을 가지고있는 도입니다. 강원도는 이러한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강원도의 경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관광지들을 잘 꾸리고 관광업을 발전시키는것입니다.

강원도에는 금강산과 삼일포, 시중호, 동정호를 비롯하여 명승지들이 많습니다. 금강산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승지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찾아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금강산에 가보려고 합니다. 금강산과 삼일포, 시중호, 동정호 같은 명승지들을 잘 꾸리면 강원도가 훌륭한 국제관광지로 될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항주에 여러가지 관광시설을 갖추어놓고 그곳을 국제관광지로 널리 선전하고있습니다. 중국사람들은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항주가 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이것은 항주가 아름답고 좋다는 말입니다. 나는 항주에 여러번 가보았는데 거기에는 서호라고 부르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중

국에서는 서호에 대한 노래까지 지어부르면서 항주를 천당과 같다고 소문을 내고있습니다. 중국 항주의 경치가 아름답고 서호가 좋다고 하지만 우리 나라 금강산과 삼일포의 경치는 그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서호는 물이 맑지 못하지만 삼일포는 물이 매우 맑습니다. 옛날에 어느 왕이 여기에 와서 하루동안 놀려고 하였지만 경치가 하도 좋아 3일동안 놀고갔다고 하여 삼일포라고 부르는데 삼일포는 정말 한번 가면 떠나고싶지 않을만큼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관광지들을 잘 꾸리고 관광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강원도는 관광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고 인민들의 생활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관광업을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기때문에 이번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토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관광업을 발전시키려면 명승지들을 관광과 휴식에 편리하게 잘 꾸려야 합니다.

강원도에서 관광하기 제일 좋은 명승지는 금강산과 삼일포, 시중호, 동정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금강산과 삼일포, 시중호, 동정호를 관광지로 잘 꾸려야 합니다. 송도원도 이름난 명승지이지만 송도원은 다른 나라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지로 꾸리지 말아야 합니다. 송도원은 장마철에 강에서 흙탕물이 흘러들어 바다물이 흐려지기때문에 해수욕을 하는데 좋지 않습니다. 동정호에서 금강산쪽으로 가면서 바다물도 맑고 좋은 백사장도 많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동정호에서부터 금강산에 이르는 지대에 투자를 집중하여 관광지를 잘 꾸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를 꾸리는 지역에는 공장을 건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광지대에 공장을 건설하여 공해를 일으키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온정리와 삼일포, 시중호, 동정호에 관광려관을 많이 지어야 하겠습니다.

관광려관을 크게만 지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광려관은 크게도 짓고 작게도 지어야 합니다.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찾아와서 구경도 하고 낚시질도

하면서 휴식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큰 려관에 다른 나라 관광객들과 함께 들이는것보다 자그마한 려관에 혼자 들게 하는것이 더 좋습니다. 앞으로 자본가들을 비롯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 나라에 휴식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을것입니다. 반영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 왔던 다른 나라 사람들가운데 조선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줄 알았으면 가족들을 데리고와서 한 열흘 푹 쉬고갈것을 그랬다고 하면서 혼자 온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휴식하러 오는 관광객들에게 자그마한 려관을 하나씩 따로 주면 그들이 좋아할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광려관을 몇동만 크게 짓고 그밖의것은 서재골에 지은 각처럼 작게 짓는것이 좋겠습니다. 관광려관을 5～6명 들수 있게 자그마하게 지으면 난방문제를 해결하기도 좋습니다. 5～6명정도 드는 관광려관은 초무연탄을 때도 난방을 얼마든지 보장할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석탄이 얼마 나지 않기때문에 초무연탄을 많이 리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방산업공장들뿐아니라 려관과 살림집들의 난방도 초무연탄으

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관광려관은 한곳에 집중하여 짓지 말고 여러곳에 분산시켜 지어야 합니다. 관광객들가운데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호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습니다. 바다바람을 쏘이고 해수욕을 하려고 오는 사람은 바다를 좋아할것이며 조용히 낚시질을 하려고 오는 사람은 물고기가 많은 호수를 좋아할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광려관을 바다가에도 짓고 호수가에도 지어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가에 있는 려관에 들게 하고 호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호수가에 있는 려관에 들게 하여야 합니다.

관광지들에 려관과 함께 오락장도 잘 꾸려야 합니다.

지금 관광지들에 문화오락시설을 꾸려놓은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락장이 없다보니 금강산에 관광을 갔던 사람들이 비가 오면 려관방에서 적적하게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비오는 날에 려관방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것은 싱거운 일입니다. 관광지들에 영화관, 수영장, 유희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화오락시설을 종합적으로 꾸리도록 하여야 하겠

습니다. 그리하여 관광객들이 비오는 날이나 공간시간이 있을 때 영화를 보고싶은 사람은 영화를 보고 수영을 하고싶은 사람은 수영을 하고 장기를 두고싶은 사람은 장기를 두고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싶은 놀이를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락장을 관광려관이 있는 곳마다 다 꾸리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일없습니다. 먼저 온정리와 시중호에 종합적인 오락장을 하나씩 꾸려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온정리와 삼일포사이, 시중호와 동정호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기때문에 삼일포와 동정호에 온 관광객들도 온정리와 시중호의 오락장에 가서 놀수 있을것입니다.

동정호에는 낚시터를 잘 꾸려야 하겠습니다. 동정호에 물고기를 많이 기르고 낚시터를 꾸려 관광객들이 와서 오락삼아 낚시질을 하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금강산에 구룡연과 상팔담으로 오르내리는 삭도를 놓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금강산에 구룡연과 상팔담으로 오르내리는 삭도가 없다보니 나이가 많거나 몸이 허약한 사람

들은 금강산에 갔다가 구룡연과 상팔담에 올라가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금강산을 구경하다가 구룡연과 상팔담에 올라갈 때에는 젊은 사람들만 올라가고 나이가 많거나 허약한 사람들은 할수없이 떨어지게 되니 그들이 서운해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사실 구룡연과 상팔담에 올라가보지 않고서는 금강산을 보았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금강산에 구룡연과 상팔담으로 오르내리는 삭도를 놓아 환갑이 넘었거나 몸이 허약하여 걸어서 올라갈수 없는 사람들은 삭도를 타고 올라가게 하면 그들이 아주 좋아할것입니다. 내가 1975년에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였을 때 그 나라에서 경치가 아름답다고 하는 보힌호에 갔던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관광객들이 삭도를 타고 산을 오르내리고있었습니다.

금강산에 삭도를 목란관이 있는데서부터 구룡연과 상팔담쪽으로 한선만 놓아야 합니다. 목란관과 구룡연, 상팔담사이에 삭도를 한선 놓고 관광객들이 삭도를 타고 올라가다가 구룡연에서 내릴 사람은 구룡연에서 내리고 상팔담으로 갈 사람은 상팔

담으로 가게 하면 될것입니다.

구룡연과 상팔담을 오르내리는 삭도는 최대한으로 안전성이 담보되게 놓아야 합니다. 삭도건설에서는 안전성을 보장하는것이 기본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성이 보장되게 만든 삭도설비를 사다가 금강산에 놓아야 하겠습니다.

금강산에 큰 삭도를 놓을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금강산에 삭도를 놓아도 그것을 탈 사람이 많지 않을것입니다. 금강산을 관광할 때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몸이 허약한 사람들이나 할수없이 삭도를 타지 웬만한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구경하려고 할것입니다. 만일 삭도를 탈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삭도가 자주 오르내리게 하면 될것입니다. 작은 삭도라도 오르내리는 회수를 늘이면 관광객을 많이 실어나를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안전성을 보장하는데서 큰 삭도를 놓는것보다 작은 삭도를 놓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작은 삭도가 더 안전하겠는가 큰 삭도가 더 안전하겠는가 하는것을 잘 따져보는것이 좋겠습니다.

금강산에 구룡연과 상팔담을 오르내리는 삭도를

빨리 놓으면 좋겠지만 다음해에는 놓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당장 다른 나라에서 삭도설비를 사오기 힘들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관광업을 대대적으로 하려면 가공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강원도에서 오래전부터 원산을 국제관광도시로 꾸린다고 벅적 떠들었지만 실지 해놓은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관광객들이 오면 자연경치나 구경시키고있는데 관광업을 그렇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강원도의 관광업이 아직 촌티를 벗지 못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금 관광업을 하는것을 보면 우리 일군들이 관광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고있는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저 자연경치나 력사유적 같은것을 구경시키는것이 관광업이 아닙니다. 관광업이라는것은 자연경치나 력사유적 같은것을 선전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 구경을 시키면서 생활상편의를 도모해주고 식료품과 일용품, 기념품 같은것을 많이 팔아 돈을 버는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자연경치나 력사유적 같

은것을 구경시키는것으로는 돈을 벌수 없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여러가지 봉사를 잘해주고 물건을 많이 팔아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내가 몇해전에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천진시에 가서 옛모습그대로 복구한 골목거리를 돌아본 일이 있는데 천진시에서는 거기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골동품과 미술작품, 인형 같은것을 팔아서 외화를 많이 번다고 하였습니다. 천진시장의 말에 의하면 거기에서 버는 외화가 천진시에서 버는 외화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관광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명승지와 고적 같은것을 잘 꾸리는것이 중요하지만 가공공업을 발전시켜 여러가지 식료가공품과 일용품, 기념품을 잘 만드는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관광객들에게 여러가지 식료가공품과 일용품, 기념품 같은것을 많이 생산하여 팔수 있는 가공공업기지가 제대로 꾸려져있지 않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관광객들에게 팔 여러가지 질좋은 식료품과 일용품을 생산보장할수 있는 가공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식료가공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관광업이 발전한 나라들을 보면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켜 관광객들에게 여러가지 식료품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식료가공품을 관광객들에게나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나 할것없이 비싼 값으로 팔아 돈을 벌고있으며 그 대신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는 높은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전에 유고슬라비아대통령은 나에게 식료가공품을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것보다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여 그들에게 파는것이 훨씬 더 리득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팔아줄만 한 식료가공품을 생산하는것이 얼마 없다보니 관광객들에게 맥주 같은것이나 좀 팔아주지 다른 식료품은 팔아주지 못하고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식료가공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과일가공품과 남새가공품, 고기가공품, 수산물가공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좋은 식료가공품을 많이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팔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식료공장들에서 만든 식료가공품을 전시한것을 보았는데 그 질이 높지 못합니다. 식료가공품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팔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식료공장들에서 식료가공품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팔려면 공장들을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강원도에서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도자체로 하려면 힘에 부칠수 있습니다. 정무원에서 강원도를 잘 도와주어 식료가공공업기지를 빨리 꾸리고 여러가지 질좋은 식료가공품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일가공품을 많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과일을 가지고 사과단물과 감단물, 배단물, 귤단물, 도마도즙 같은 과일가공품을 만들어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과일가공기지를 꾸리면 여러가지 과일가공품을 많이 생산할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기후가 따뜻하기때문에 여러가지 과일이 잘됩니다.

강원도에는 감이 잘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감나무를 많이 심어놓고도 비배관리를 잘하지

않아 감을 얼마 생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감나무는 비배관리만 잘하면 감이 많이 열립니다. 내가 온천군에 있는 감나무를 시험해본데 의하면 감나무 한그루에서 감을 몇백kg씩 딸수 있습니다. 그전에 중앙당 본청사앞에도 감나무가 몇그루 있었는데 해마다 감이 많이 달렸습니다. 감은 지대가 높고 추운데서는 잘 안되지만 지대가 낮고 온화한데서는 어디에서나 잘됩니다. 강원도에서는 감나무비배관리를 잘하여 감을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사과도 잘되고 배도 잘되며 밤도 잘됩니다. 강원도의 배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내가 해방직후에 금강산에 가서 구경을 하고 내려오는데 신계사의 중들이 배를 따서 큰 광주리에 가득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배를 먹어보았는데 그 맛이 얼마나 좋았던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다른나라 사람들이 몇명 같이 갔댔는데 그들도 배를 먹어보고는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면서 조선배가 제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과일가공기지를 잘 꾸리고 도에서 나는 과일들로 여러가지 질좋은 과일가공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과일단물도 만들고 말린 과일제품과 과일단졸임, 과일절임도 만들어야 합니다. 사과절임, 배절임, 대추절임 같은 과일절임을 잘 만들면 맛이 좋습니다.

남새가공품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남새가공공업을 발전시켜 말린 제품과 절인 제품, 가루제품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질좋은 남새가공품을 많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고기가공공장을 잘 꾸리고 고기순대, 양밸순대를 비롯한 여러가지 고기가공품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고기가공품을 많이 생산하려면 고기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오리, 닭, 토끼와 같이 빨리 크고 번식률이 높은 집짐승을 많이 기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토끼는 빨리 클뿐아니라 번식률이 높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토끼기르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토끼고기를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토끼고기만 있으면 고기순대도 많이 만들수 있습니다.

칠면조, 진주닭 같은것도 길러야 합니다. 진주닭은 빨리 크고 번식률이 높습니다.

수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데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잡는 물고기만 가지고도 수산물가공품을 많이 만들수 있습니다. 낙지가공품 같은것은 맥주안주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강원도에서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켜 과일가공품과 남새가공품, 고기가공품, 수산물가공품을 많이 생산하려면 앞으로 한 2～3년동안 식료공장들을 잘 꾸리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강원도에서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켜 여러가지 식료가공품을 많이 생산하려면 그에 필요한 원료를 충분히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강원도의 농촌경리부문에서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원료를 생산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안변군과 통천군, 고성군 같은데서 남새온실도 꾸리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남새를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참외와 수박 같은것도 많이 심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외와 수박 같은것을 생산하면 관광객들에게 얼마든지 팔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원

료와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것을 위주로 하여 농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다음해에 관광객을 한 10만명 받고 앞으로 점차 그 수를 많이 늘일것을 예견하여 관광지도 꾸리고 가공공업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관광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관광지로 꾸릴수 있는 곳이 많으며 이미 관광시설을 꾸려놓은것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넣어 관광지를 잘 꾸리면 관광객을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정무원에서 앞으로 관광객을 한해에 50만명씩 받을것으로 타산하였다고 하는데 가까운 몇해안에는 그만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망적으로는 우리 나라에 오는 관광객의 수를 100만명, 200만명, 300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관광지들을 잘 꾸리고 관광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면 우리 나라에 관광객이 한 1억명도 올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객이 늘어나는데 맞게 비

행기항로를 새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먼저 평양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벌가리아의 쏘피아까지 가는 항로를 새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쏘피아를 거쳐 아프리카까지 가는 항로도 개설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오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면 평양-빠리사이의 항로도 개설할수 있을것입니다. 평양-단동사이에도 항로를 새로 개설할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단동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들가운데는 평양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사람들과 사업을 잘하면 중국비행기가 단동에 온 관광객을 싣고 평양까지 오게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관광객들이 비행기로 평양에 오면 먼저 평양시를 돌아보게 한 다음 본인의 요구에 따라 그들을 금강산이나 묘향산 같은데 보내야 합니다. 관광로정은 평양-원산, 평양-묘향산, 평양-개성으로 할수 있습니다. 평양-백두산도 관광로정으로 할수 있습니다.

묘향산은 관광지로 잘 꾸려져있습니다. 묘향산은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거기에는 국제친선전람관

도 있고 절간도 여러개 있습니다. 향산군에는 관광객을 받을수 있는 려관과 호텔도 꾸려져있고 관광객들에게 맥주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질좋은 식료품을 생산보장할수 있는 식료공장도 잘 꾸려져있습니다. 온천물을 끌어가기 위한 공사까지 마저 끝내면 묘향산은 훌륭한 관광지로 될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묘향산에 가면 거기에서 한 3~4일동안 있으면서 국제친선전람관도 참관하고 상원암에도 올라가보고 만폭동과 서산대사가 있던 절간에도 가볼수 있습니다.

개성시도 잘 꾸리면 인기있는 관광지로 될수 있습니다. 개성시에는 판문점이 있고 공민왕릉을 비롯한 고적도 많으며 박연폭포도 있습니다. 개성은 평양에서 기차로도 갈수 있고 고속도도로를 리용하여 자동차로도 갈수 있으므로 관광객들이 다니기 편리합니다. 지금은 개성시에 가는 관광객들을 주로 판문점만 참관시키고있는데 판문점뿐아니라 공민왕릉과 박연폭포에도 가보고 인삼포전에도 가보게 하여야 합니다. 관광객들이 인삼포전에 가서 인삼을 재배하는것을 보게 하고 요구에 따라 인삼을 생채

로 팔아주면 그들이 좋아할것이며 외화도 많이 벌수 있을것입니다. 어느 한 나라 장사군의 말에 의하면 인삼을 생채로 팔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합니다. 생채로 파는 인삼은 부르는것이 값이라고 합니다. 개성에 민속려관이 있는데 그 민속려관이 구라파사람들의 인기를 끌고있습니다. 구라파사람들은 온돌방에서 자보는데 흥미를 가집니다. 구라파 관광객들을 민속려관에서 자게 하면 그들이 좋아할것입니다. 관광시설을 서양식으로만 꾸리지 말고 동양식으로도 꾸려야 합니다. 개성시를 잘 꾸리면 관광객들이 거기에 가서 며칠동안 있으면서 구경할수 있을것입니다. 개성시에 관광객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려관과 식료공장 같은것을 잘 꾸려야 합니다.

우리는 평양시도 관광지로 더 잘 꾸리려고 합니다.

평양시에서 최근에 대성산을 잘 꾸렸습니다. 대성산은 좋은 산이지만 흐르는 물이 없기때문에 노루와 사슴 같은것을 많이 기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림갑문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대동강물을 퍼올려 대성산에 물이 흐르게 하였는데 그렇게 하니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대성산

에 울타리를 치고 사슴과 노루를 몇백마리씩 기르려고 합니다. 이제 대성산에 몇개의 건축물을 더 건설하고 력포구역에 있는 동명왕릉까지 잘 꾸리면 관광객들이 평양시를 돌아보고 더욱 흥미있어 할것입니다.

구월산과 과일군의 진강포도 잘 꾸려야 합니다. 진강포해수욕장은 물이 맑고 모래가 굵기때문에 해수욕을 하기 아주 좋다고 합니다. 지금 평양에서 일요일에 해수욕을 하러 진강포해수욕장에 가는 사람이 많은데 필요한 시설들을 제대로 갖추어놓지 않아서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진강포해수욕장에 위생편의시설도 잘 꾸려놓고 매점도 여러개 차려놓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진강포해수욕장을 잘 꾸려놓으면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러 원산으로 가지 않고 진강포로 갈것입니다.

관광업을 발전시켜 외화를 많이 벌려면 봉사활동을 잘하여야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는데서 관강객들이 삭도나 오락시설, 낚시터 같은것을 공짜로 리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 돈을 받아야 합니다.

관광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우리 사람들

이 다른 나라 말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영어를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상품을 팔려고 하여도 다른 나라 말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 말을 모르고서는 관광객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잘할수 없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대외봉사일군들뿐아니라 일반주민들도 영어를 배우도록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관광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관광객들을 초청해오고 안내하는 사업과 그들을 먹이고 재우는 봉사활동을 한 기관에서 맡아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였는데 지금조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에 대한 초청안내사업과 봉사사업을 한 기관에서 맡아보게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못할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여러가지 사업을 한 기관에서 맡아하여 잘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군들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다 맡아하면 잘될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관광업을 한 기관에서 맡아하게 하였다가 일군들이 관료주의를 부리면 일을 도리여 그르칠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나라에서 관광업이 지금만큼이라도 발전한것은 관광업을 여러 기관에서 맡아서 하였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업을 한 기관에서 통일적으로 맡아하게 하면 관광객들에 대한 봉사사업과 국가적인 초청을 받고 오는 손님들에 대한 봉사사업을 두 갈래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오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봉사사업은 지금체계대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도에 있는 대외봉사관리국의 사업체계는 좀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 도에 있는 대외봉사관리국은 도의 지도도 받고 정무원 대외봉사국의 지도도 받도록 2중종속을 시키는것이 좋겠습니다.

강원도에 대외봉사관리국을 새로 내오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관광총국장이 국가관광총국이 직접 가지고 있는 호텔이 없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관광계약을 맺을 때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동무는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호텔과 려관이 많습니다. 평양시에만 하여도 고려

호텔, 청년호텔, 량강호텔, 서산호텔을 비롯하여 많은 호텔과 려관이 있으며 도들에도 호텔이 많습니다. 이 호텔들은 어느 기관이 가지고있든지 다 국가의 호텔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것이 다 국가의 소유이지 어느 개인이나 개별적기관의 소유로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 있는 호텔들은 다 관광총국의 호텔이라고 말해도 일없습니다. 국가관광총국장이 말하는것을 보면 지금 사회주의에 대한 교양사업이 잘되는것 같지 않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선전부에서 우리 일군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을 옳게 가지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관광업에 복무하지 않는 공업은 더 전개하지 말고 지금 있는 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6월4일차량련합기업소와 원산조선소를 잘 정비하고 차량과 배생산을 늘여 국내수요도 보장하고 다른 나라에 팔기도 하여야 하겠습니다. 문평제련소와 천내리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도 생산능력을 확장하느라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생산능력을 최대한으

로 리용하여 생산을 늘이는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늘여가지고 제품을 다른 나라에 팔아서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사다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양시를 비롯하여 공업이 많은 다른 도들에서도 이런 방향에서 도의 경제문제를 다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금강산발전소건설을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금강산발전소를 건설하여야 강원도는 물론, 황해남도와 황해북도의 전력문제도 풀릴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사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농사를 잘 지어 농업생산을 늘이려면 무엇보다도 토지개량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강원도의 높은 지대의 땅은 심히 산성화되여있고 낮은 지대의 논은 모래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개량하지 않고서는 강원도에서 농사를 잘 지울수 없습니다. 산성화된 땅에는 카바이드재와 소

석회, 백운석을 치고 낮은 지대의 논에는 흙깔이를 하여 토지를 개량하여야 합니다. 강원도에서 농사를 잘 지어 농업생산을 늘일수 있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다음해에 산성화된 논밭에 카바이드재와 소석회, 백운석을 적어도 정보당 5t씩은 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산성화된 땅에 카바이드재와 소석회, 백운석을 정보당 10t씩 쳤으면 좋겠지만 카바이드재를 그렇게 많이 보장하여줄수 없습니다.

교통운수부문에서는 강원도에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나오는 카바이드재를 한 20만t 실어다주어야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농사를 잘 짓게 하려면 비료도 많이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올해에 강원도에 비료를 공급한 정형을 료해하여보았는데 농사가 잘 안되는 도라고 하여 비료를 얼마 주지 않았습니다. 비료를 많이 치지 않고서는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일수 없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정보당 카바이드재를 5~10t씩 치는 조건에서 질소비료를 600~800㎏씩 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산성화된 땅에 카바이

드재를 치지 않고 비료를 많이 주어서는 비료나 랑비하였지 소용이 없습니다.

토지개량을 하는것과 함께 깊이갈이도 하여야 합니다. 강원도에 깊이갈이를 하여야 할 논밭이 적지 않은것만큼 깊이갈이를 하는데 필요한 《풍년》 호뜨락또르를 보장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강원도농사에서 물문제는 제기되지 않습니다. 강원도는 비가 여름에도 많이 내리고 가을에도 적지 않게 내리기때문에 가물어서 농사에 지장을 받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금강산발전소까지 건설되면 강원도에서 물문제가 더욱 원만히 풀릴수 있습니다.

강원도농사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태풍피해를 받지 않도록 작물배치를 바로하는것입니다.

강원도는 태풍이 심하게 부는 지대입니다. 제주도쪽에서 동해안을 따라 부는 태풍도 강원도를 지나가고 서해안쪽에서 중부지역을 따라 부는 태풍도 강원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강원도는 다른 도들보다 태풍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강원도에서 태풍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막으려면 키낮은

강냉이나 고구마 같은 작물을 심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일군들은 강냉이밭면적을 70만정보 보장한다고하면서 태풍피해 같은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강냉이를 심으라고 내리먹이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강냉이를 심으면 태풍피해를 받아 수확을 얼마 거둘수 없는 지대에까지 강냉이를 심어 농사를 망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알곡생산계획을 주는 방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알곡생산계획을 줄 때 강냉이를 얼마 생산하라고 찍어주지 않고 벼를 얼마 생산하고 잡곡을 얼마 생산하라는 식으로 계획을 주어 지방들에서 적지적작의 원칙에 따라 작물을 배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태풍피해를 받는 밭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것을 료해하여보고 키낮은강냉이를 심을데는 키낮은강냉이를 심고 고구마가 잘되는데는 고구마를 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금강산일대를 비롯하여 태풍이 심하게 부는 지대에는 고구마가 잘되면 고구마를 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고구마는 밥대신에 먹을수도 있습니다. 고구마는 간식으로 먹어도 좋고 밤참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고구마는 수확고도 높습니다. 고구마를 강냉이처럼 비료를 주고 잘 가꾸면 정보당 30t씩 낼수 있는데 이것은 알곡 10t과 맞먹습니다. 알곡과의 비률을 감자는 4대1로 환산하지만 고구마는 3대1로 환산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고구마를 많이 심으려면 모를 기르는것이 문제인데 그것도 일없습니다. 고구마모를 온실에서도 기르고 랭상모로도 키우면 얼마든지 보장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농업과학원 밭작물연구소에서 고구마를 씨를 받아 심어보았다고 하는데 고구마씨를 직파하면 좋을것입니다.

황해남도 옹진과 강령일대에도 고구마를 더러 심는것이 좋습니다. 해방전에 옹진과 강령사람들은 고구마를 심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인가 그곳 농민들과 담화한 일이 있는데 옹진, 강령지방에서는 태풍이 많이 불기때문에 고구마를 심어서 서울에 가져다팔았다고 합니다. 옹진, 강령일대에 고구마를 심으면 앞그루로 쌀보리를 심어 2모작도 할수 있습니다. 쌀보리는 일찍 여물기때문에 앞그루로 심으면 태풍피해를 받지 않을수 있습

니다. 강원도에서도 고구마를 심는 지대에 2모작을 할수 있으면 고구마앞그루로 쌀보리를 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강원도와 황해남도에서 고구마를 많이 생산하면 그것을 수매하여 평양에 가져다 공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양에는 옛날부터 군밤과 군고구마가 유명하였습니다.

내가 12살때 강윤범동무와 같이 칠골에서 평양시내에 들어왔다가 저녁늦게 집으로 가던 길에 군고구마를 사먹었는데 그때의 일이 아직도 인상깊이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평양시에 군고구마를 파는것이 얼마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자동차를 타고 평양시내를 한바퀴 돌아보았는데 군밤이나 군고구마 같은것을 파는데가 없습니다. 강원도와 황해남도에서 생산한 고구마를 평양에 가져오면 그것을 식량으로 공급하지 말고 시민들이 간식으로 먹을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강원도와 황해남도에서 생산한 고구마를 평양시에 실어나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어

느해인가 황해남도에서 고구마를 많이 생산하였는데 그것을 실어나르지 못하여 애를 먹었습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강원도와 황해남도에서 고구마를 생산해놓으면 수송조직을 잘하여 제때에 실어날라야 하겠습니다.

평강지방에는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무우를 많이 심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내가 전쟁전에 평강군을 현지에서 지도하였는데 그 지방은 알곡농사는 잘되지 않고 무우농사가 잘된다고 하기때문에 무우를 많이 심도록 하였습니다. 그해에 평강지방에 무우가 아주 잘되여 미처 처리하기 곤난한 형편이였습니다. 그래서 평강지방에서 생산한 무우를 평양시에 실어다 공급하였습니다. 그때는 평양시에서 남새가 모자랐습니다.

이제부터 평강지방에서 강냉이가 잘 안되는 밭에는 강냉이를 심지 말고 무우를 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방전에 일본자본가가 평강지방에 무우를 많이 심어가지고 겨절임무우를 전문적으로 만들어팔았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평강지방에 무우를 많이 심

어가지고 겨절임무우를 만들어 인민들에게 공급하면 좋을것입니다. 겨절임무우는 맛이 좋습니다. 평강지방에 무우겨절임공장을 꾸리고 겨절임무우를 많이 생산하여 전국에 공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평강지방에 사탕무우도 심어보아야 하겠습니다.

평강지방에서 사탕무우도 잘될수 있습니다. 평강지방은 자연지리적조건이 량강도지방과 비슷합니다. 올해에 량강도에 사탕무우를 시험적으로 심었는데 괜찮게 되였습니다. 사탕무우농사를 잘하면 한정보에서 사탕무우를 한 30t씩 낼수 있습니다. 사탕무우를 정보당 30t씩 내면 그것으로 사탕 3t 500㎏, 술 1t을 생산하고 그 찌꺼기로 돼지고기 1t을 생산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탕무우를 심는것이 다른 작물을 심는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돼지고기 1t을 생산하는데 알곡이 4t 들므로 돼지고기 1t을 생산하면 결국 알곡을 4t 생산하는것으로 됩니다. 그러니 사탕과 술은 거저 얻는것이나 같습니다.

평강지방에 사탕무우를 심어보고 잘되면 강냉이가 잘 안되는 밭에 사탕무우도 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수확이 낮고 경사가 25° 이상 되는 비탈밭은 뽕밭으로 전환하여야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바다가양식은 가능성을 타산하여 할 수 있는것만큼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무원에서 강원도의 인민경제발전대책안을 다시 토론하여 만든것을 보았는데 그 내용이 좋습니다. 나는 거기에 지적된 문제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가지고 중앙인민위원회결정을 만들어 내려보내야 하겠습니다. 중앙인민위원회결정이 나가면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이번 중앙인민위원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려면 강원도당 책임비서와 강원도안의 시, 군당책임비서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일을 잘하여야 합니다. 강원도당 책임비서와 도안의 시, 군당책임비서들은 강원도의 주인입니다. 도당책임비서와 시, 군당책임비서들은 당조직의 책임자일뿐아니라 주권기관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므로 도, 시, 군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해당 도, 시, 군의 행정 및 경제지도

위원장뿐아니라 당책임비서들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 시, 군당책임비서들은 자기 도와 자기 시, 군의 경제사업을 틀어쥐고 잘 지도하여 인민경제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는 이번 중앙인민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강원도의 경제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